재정경제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 3. 31.(수) 18:00 배포 2026. 3. 31.(수) 17:30

재경부 2차관, WGBI 편입개시 대비 외국계 금융기관·PD 간담회 개최

- 4월 WGBI 편입 계기 외국인 자금 유입 본격화 기대
- 정부, 현장 애로 해소 통해 원활한 자금 유입 지원, 추가 유입 촉진 방안 모색

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**'26.3.31.(화) 15시 정부서울청사**에서 **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(WGBI*) 편입개시**에 앞서 **외국계 금융기관 및 국고채 전문딜러(PD)****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 이번 간담회는 금융기관들의 **WGBI 편입 준비상황을 점검**하고, 편입에 따른 **외국인 자금 유입 전망**, **국내외 금융시장 동향**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**W**orld **G**overnment **B**ond **I**ndex: 영국 런던증권거래소 자회사인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(FTSE) 러셀이 발표하는 채권지수로, 미국·독일·중국·일본 등 25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 지수(추종자금 2.5~3조 달러로 추정)로 평가

** 참석자: J.P.Morgan은행 김기준 대표, Citi은행 엄지용 부행장, Daiwa증권 변정규 전무, 도이치 이도훈 대표, 크레디아그리콜 김정은 대표, KB국민은행 이성희 부행장, 미래에셋증권 이재현 대표, NH투자증권 이성호 본부장

허 차관은 **WGBI 편입**이 **국제금융시장**에서 **우리 국채시장의 위상**을 **한 단계 높이는 이정표**로, 이는 **정부**와 **관계기관**의 **제도개선 노력**과 **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**가 더해져 이루어진 **성과**라고 평가했다. 허 차관은 **WGBI 편입의 효과가 극대화**되기 위해서는 **자금의 원활한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함**을 강조하며, 정부는 이에 더해 **추가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**를 위해 **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**를 밝혔다.

외국계 금융기관과 PD사 참석자들은 이번 **WGBI 편입 추진과정**에서 이루어진 **정부와 관계기관의 국채·외환시장 제도개선을 높게 평가**하며, WGBI 편입이 국내 금융시장에 호재라고 언급하였다. 참석자들은 **500~600억불 수준**의 **신규자금 유입을 예상**하고 **일본을 포함한 전세계 투자자**들이 **한국 국채시장**에

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. 특히, 일부 참석자는 실제 금주 들어 **신규 투자자 자금유입이 확인**되고 있다고 소개하며, **국내 금융시장**에 미치는 **긍정적 효과**도 **점차 가시화**될 것이라고 언급했다.

아울러, 참석자들은 **지속적인 국채 시장의 저변 확대, 투자자 다변화 필요성**을 강조하며, 유로클리어 등 **국채통합계좌 이용 확대, Repo 시장 활성화**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. 또한, 정부가 **자본시장 발전**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**시장참여자는 물론,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·홍보활동**도 강화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.

허 차관은 **금융시장 현장**에서 **외국인 투자자들과 직접 접점**에 있는 **외국계 금융기관**과 **국고채 전문딜러**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하며 **적극적인 협조**를 당부하며, 정부도 '**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**'(단장: 재경부 국고실장)을 가동하여 **자금유입 상황을 점검**하고,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**현장의 애로사항**을 **신속히 해소해 나갈 것**임을 언급하였다. 끝으로, 허 차관은 **자본시장 선진화**를 위해 **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**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**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**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.

한편, 정부는 '**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***'을 WGBI 편입이 시작되는 **4월부터 11월**까지 운영할 계획으로, **4.1일 킥오프 회의**를 개최할 예정이다.

* 구성: 재경부(반장: 국고실장), 금융위, 한은, 금감원, 예탁원 등

담당 부서	국고실 국채시장과	책임자	과 장	이재우 (044-215-514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중민 (pymwm@korea.kr)
			사무관	유영한 (yhyou97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